골롬반 선교

2022년 겨울호 vol.123

지난여름, 파키스탄은 전례 없는 대홍수로 수백 명의 어린이를 비롯해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시편 69,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안인성 패트릭 신부 • 본지 편집장

저는 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력적이며, 솔직하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성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보았던 때와 같은 진정한 통찰의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개인으로서나 제자단체로서나 일관되게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약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고, 일터에서 잠들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단점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쉽게 동일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제자들(복음서 표현으로 "그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지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켰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모습에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약점과 실패를 정직하게 묘사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비난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은 그 이상 무언가가 되도록 늘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로서 우리와 이웃들 또한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지녔음을 믿도록 초대받습니다.

성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하는 것은 큰 가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범한 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주님과 화해할 기회를 누리지 않고 자살로써 용서의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실패를 직시했던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면(18,12–27)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세 번 질문하시는 장면(21,15–19)이 마치 거울에 비춘 듯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는 용서를 받고 양 떼를 돌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성 바오로의 회심 이야기(9,1–22)에서도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초대 교회 신자들을 박해한 이었으나(8,1–3), 주님을 만난 후, "일어나서…"라는 도전을 받습니다(9,6). 이는 용서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기본인데도 그 역동성이 교회에 의해 종종 잊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선함을 신뢰하기보다는 죄책감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바오로처럼)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하느님의 양 떼를 먹이는 것을 너무 자주 방해합니다.

이번 겨울호를 펴내며 위대한 성탄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 눈에 비친 희망과 신뢰, 기대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갓난 아기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아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눈길을 느끼며, 일어나서 양 떼를 먹여 살리러 함께 걸어갑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차례

02 마음을 여는 글 | 안인성 패트릭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본다면

시노달리타스
04 토마스 오라일리
변방으로 가는 여정 2

06 최현순 데레사 시노드는 계속됩니다

08 양서희 카타리나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

10 말씀 산책 | 노야곱
"참"이신 하느님

12 선교 단상 | 지광규 대철 베드로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14 칠레 이야기 |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칠레에서 만난 하느님

16 생태적 회심 | 다니엘 오코너
파키스탄 대홍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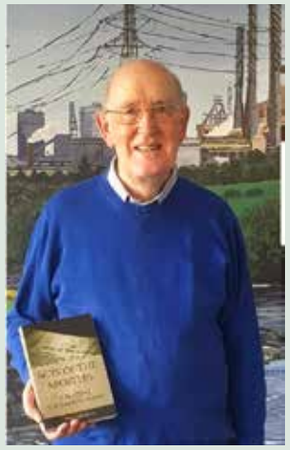
18 평신도선교사 | 이지영 크리스티나
대만에서 쓰는 선교 일기

20 선교의 은총 | 민후고
내가 성장한 곳, 한국

22 신학원 | 권태문, 핀바 맥스웰 외
골롬반 선교로 초대합니다

24 함께하는 여정 | 방순옥 엘리사벳
길 위에서 만난 동반자

26 후원회
28 골롬반 소식



토마스 오라일리 신부
Thomas O'Reilly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7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파키스탄과 영국에서 선교했다. 교황청립 성서대학에서 성서학을 전공한 후에는 아일랜드의 성골롬반신학교와 키미지선교대학에서 가르쳤다. 2021년, 책 『사도행전-오늘날 선교를 위한 독서*Acts of the Apostles: A Reading for Mission Today*』를 썼다. 현재 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도행전과 함께

변방으로 가는 여정 2

초기 유대교회가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도행전에 비추어,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걷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왜 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성찰하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는 베드로가 변방 사람인 코르넬리우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회 중심에 있는 이들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경청한 일이 교회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공동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한 기회였음을 살펴보았다(10,1-11,18). 이번 호에서는 교회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이해가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내린 중요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변방을 찾아가 선교의 손길을 내밀도록 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15,1-35).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더 머나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점점 교회로 편입되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인의 정체성에 관한 의문이 더 강하게 제기되었다.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방인이 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였다. 결국 이 문제를 교회 지도자들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대표단,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예루살렘으로 파견되었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찬성파와 반대파는 서로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양측이 논쟁하는 태세에서 경청하는 자세로 돌아서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베드로는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어떤 율법보다도 성령의 축복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하였다. 이어서 바오로와 바르나바도 하느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자신들의 체험을 들어 이야기하였다. 참석자들은 잠잠해져 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변방에서 현존하시며 활동하고 계시는 분임을 교회가 인정하고 참여할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현지 지도자 야고보는 변방에서 겪었던 이러한 경험이 이방인들도 당신 사람으로 포용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이 언급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했다(15,15-18).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했는데 모든 참석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되 유대교식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사도 회의를 통해 형성되었다.

> 우리의 태도를 논쟁 중심에서 경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경청하는 과정, 즉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각자 무언가 기여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
> 특히 우리와 관점이 다르거나 변방, 저 먼 끝자리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 유대교 율법이 금하는 관행을 삼가 달라는 요구를 받곤 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이 해당 율법의 일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보다는 유대인 그리스도교도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바를 비유대인 그리스도교도들이 공감해 주고 타협점을 찾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호소로 여겨야 한다. 서로 공유하는 분위기에서, 다른 문화 배경에서 온 사람들의 서로의 경험을 통해 함께 풍요로워지리라는 열린 마음으로, 자주 어울릴 기회를 마련하는 현실적 조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교감이 활발해지고 함께 선교에 나서는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듯 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사도 회의 참석자들은 비로소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좋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15,28 참조). 새로운 의문과 도전에 직면하면서 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꼈다. 오늘날 시노달리티 과정은 성령께서 교회의 삶과 사명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기도를 통해 식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어떻게 식별할지는 예루살렘 사도 회의를 떠올려보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태도를 논쟁 중심에서 경청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유하고 경청하는 과정, 즉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각자 무언가 기여하고 무언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와 관점이 다르거나 변방, 저 먼 끝자리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예루살렘 사도 회의는 다른 배경이나 관점을 가진 이들과 지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시노달리타스 여정이 교회 내에서 모두가 목소리를 내고 듣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교회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더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할 실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령께서는 종종 놀라운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변화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응답하기 위함일 것이다.

* 〈변방으로 가는 여정 1〉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현순 대 데레사

평신도 신학자이며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이다. 교황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및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 『은총』, 『시노달리타스』 등을 썼다.

세계주교시노드 로고 출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시노드는 계속됩니다

> "시노달리타스는
> 하나의 "과정"으로서 경청 – 식별 – 실행
>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은
> 일직선이 아니라 순환적이다.
>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노달리타스를
>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

"시노드는 계속됩니다."

최근, 교황청 시노드 사무국에서 발표한 〈대륙단계별 작업문서〉는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신자들은 크고 작은 공동체나 본당에서 시노드를 했고 이것은 교구 단계에서 그 의견이 수합되어 각 나라 주교회의에 보내졌다. 그리고 각 나라 주교회의는 이를 종합하여 교황청 주교 시노드 사무국으로 보냈으며, 이곳에서는 전 세계 114개국 주교회의 보고서와 동방교회 보고서, 수도자,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합한 개인과 단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문서가 의도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 문서나 사회학적 분석 보고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각 보고서가 담고 있는 백성의 소리를 식별한 후 전 세계 신자에게 "다시 – 들려주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는 전 세계에 보편적인 소리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만 나온 소리도 있으며, 또 어떤 지역교회에서 미처 내지 못했던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낸 소리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각 나라 주교회의부터 각 교구와 본당, 단체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백성 전체가 이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현재 가톨릭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가 결코 일회적 사건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노달리타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경청–식별–실행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순환적이다. 실행한 혹은 실행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보려면 이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식별해야 한다.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때 시노달리타스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

다시 들려주는 것

이 순환성은 각 공동체의 지도자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필요하다. 목자이든 혹은 평신도이든 공동체의 책임자는 구성원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공동체와 함께 식별하며 식별한 바를 공동체로 하여금 "다시 듣도록" 해야 한다. 이런 순환 방식이 곧 대화이고 소통이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교회는 단순히 '아래로부터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시노달리타스가 교회의 이전 삶의 방식, 곧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변두리로, 교회에서 세상으로와 같은 일방적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는 "다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과 대화의 교회이고, 순환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교회이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또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명성 또한 필요하다. 식별과 결정에 필요한 정보, 결정 과정, 결정 내용이 관계된 사람들에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15장이 전하는 예루살렘 회의는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느님 백성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모인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오신 일을 이야기하고,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전하며, 아마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유다화(化)에 찬성했을 야고보 사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그것을 해석한다. 그리고 사도들과 온 교회가 결정한다. 함께 "검토"하고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 비추어 성령 안에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시노달리타스의 교회를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시노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이다. 그래서 시노드는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시노달리타스 사진 제공: 양서희

양서희 카타리나

서울대교구 청구성당 청년 신자이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

'변방'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 정의로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 지역'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중심에서 먼, 외딴 지역 또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사명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 변방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곧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구원 계획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곳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교회는, 비록 때로 인간적 한계 때문에 분란을 겪을지라도 늘 변방으로, 외딴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다가가 함께하려 노력해온 공동체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선조 신앙인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다시금 일깨워진 시노달리타스 정신으로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시노달리타스, 그런데 우리는 진정 함께 걸어가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하며 더없이 감격하지만, 하느님 백성들 안에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 두려움, 원망, 체념 등이 다가온다는 것을 목격한다. 하느님 백성을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분명 함께 걸어가고 있을 텐데, 왜 이런 감정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헌신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함께 모두가 부름받은 사명으로 중대한 보편적 의미를 지닙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하느님 백성으로서 함께 이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된다. 나는 앞서 언급한 감정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유로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소외되기도, 제자리를 잃고 중심에서 먼 구석으로 몰리기도 한다. 더군다나 하느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 의미를 잃어 더 이상 함께 걸어가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멈춰 서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 곧 '변방'이 된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식별하여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느님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 '변방'이 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누구의 탓일지라도 말이다. 그러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멈춰 서 있는 형제자매를 찾아 그 안에 살아 계시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뜻이 그 형제자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우리는 자기 소리 내기를 멈추고 침묵하며 '변방'이 된 이들 안에 울리는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때 우리의 침묵은 하느님을 드러낸다. 우리가 '변방'이 되어 함께 걷지 못하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왜 '변방'이 되었는지 살펴볼 때,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존중하고 흠숭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변방으로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뜻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여전히 많다. 우리는 변방으로 나아가 만나는 모든 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발견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 저마다에게 주어진 역할이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노달리타스 여정 안에서 변방의 목소리를 듣는 교회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의 고난을 함께 나누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교회로서, 민족들의 침해될 수 없는 존엄과 봉사인 권위의 역할을 재발견하는 것이 정의와 형제애로 시민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꿈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세상을 전해 줍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년 10월

“참”이신 하느님

노야곱 James Nolan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서품 이듬해인 1964년에 한국으로 왔다. 광주 계림동, 흑산도, 노안, 목포 산정동·대성동, 강원 사북, 제주 서귀포, 인천 가정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91년부터 10년간 후원회 담당을 하였으며, 2001년에 칠레로 가서 6년 동안 한인 교포사목을 하였다. 현재 제주 골롬반 후원회를 맡고 있다.

“신부님의 영성에 빛을 비춰 주는 성경 말씀과 왜, 선교사 생활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는지 묵상을 우리 잡지에 써 주십시오.” 우리 편집장 신부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60년 동안 해외선교하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제 여정을 밝혀 주는 말씀을 따라가며 살았지만,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으로 제 영적 생활을 남에게 드러내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순명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선교 생활을 하느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하느님 사업에 참여하면서, 당신께서 친히 주신 도구인 성서를 늘 가까이합니다. 우리 종교는 계시된 종교이므로 계시해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저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성경은 모두 하느님의 가르침이지만, 특히 그중에서 몇 가지 말씀이 제 귀에 울립니다. 그 하나는 예수께서 하셨던 기도로 제 삶에서 저를 지탱하고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 17,3)

제주 골롬반 사제관 후원회 미사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자는 이름을 물은 다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러면 본인이나 대부모가 “신앙”, “영원한 생명”이라고 대답합니다. 세례자는 즉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씀에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잡신이 많이 있는데, 하나이신 하느님만이 오직 참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겠습니다.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느님 자체, 아름다움, 선함, 참 진리가 자기 눈앞에 서 있었는데도 그는 방향을 홱 돌려 대사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으니 매질만 하고 풀어 주겠소.” 이 얼마나 약한 지도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 말할 때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고, 수천 명에게 설교했지만, 나는 항상 중계 역할일 뿐이란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아버지를 아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 “… 우리의 거처는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항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의 도시에는 눈물도 슬픔도 전쟁도 죽음도 끝도 없고, 다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얼마 전 제주 골롬반 사제관 문패를 기부한 고영민 율리안나 후원회원과 함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도시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이 온갖 미디어에서 맨 오락이나 천박한 것을 찾고, 복음의 메시지는 뒤로 밀려났으며, 많은 이가 영원한 삶을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사람들이 뱉는 침을 맞고 계십니다. 고난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때는 아직 군사들이 손도 대기 전이었는데! 아마도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관심 때문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쓸모없는 메신저(전달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나 보고, “일생 동안 몇 명을 회개시켰느냐? 하면 제가 “아무도”라고 답합니다. 예, 제가 정말 말을 했고, 설교했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말과 같이,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느님만이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십니다”(1코린 3,6). 이는 사실입니다.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지광규 대철 베드로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서울 출신이며 2016년 사제품을 받고 필리핀으로 파견되었다. 마닐라 교구 말라떼 성당에 이어 잠발레스 교구 성 로사 성당에서 일하였고, 다시 말라떼로 가서 5월까지 제2보좌로 사목하였다. 7월, 마닐라 골롬반국제신학원 양성장으로 발령받아 현재는 미국 시카고에서 양성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2006년 3월, 저는 입회와 동시에 '영성의 해'라고 부르는 1년간의 수련 과정을 하러 제주도 성이시돌목장으로 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학생 5명과 지금은 호주에 계신 배민수 켈빈 신부님, 이시돌의 이어돈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제 안에는 분노가 늘 가득했고, 모든 것이 불만이었으며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속은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사람이기를 바랐던 저였습니다.

과정 중반이 지났을 때 우리는 30일 이냐시오 침묵 피정에 들어갔고, 온전히 하느님과 함께했던 은총의 시간은 지금도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피정 중 어느 날, 제 삶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이어돈 신부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신부님을 보았는데 함께 울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부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그것이 분노라 할지라도 하느님께 말씀해야 합니다. 빈 성당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소리치고 따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셨냐고, 왜 아무런 도움을 안 주셨냐고 화내고 따질 수 있어야 해요. 나의 감정, 불평불만도 안 들어 주신다면 그분은 진짜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느님 앞에서도 좋은 사람인 척하고 지냈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때때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애써 무시하고 못 본 척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골롬반 신부님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사제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하고 추스르면서 착한 사람이 아닌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올바른 사제가 될 수 있다고.

지난여름, 총장 신부님은 저를 마닐라에 있는 골롬반국제신학원으로 발령 내면서 신학생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준비하라고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골롬반 신학생들과 함께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신학 공부도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입회하기 전에는 외국인을 가깝게 만난 적도 없고,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살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멀리 떠나야 하며, 자기 나약함과 한계를 자주 마주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오고, 외국어로 표현하는 한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 감정을 표현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 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주셨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선배 신부님들, 저와 함께 제 삶을 걸어갔고 걸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갈 동료 선교사들,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 이렇게 당신께서 보내주신 분들의 기도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선교사의 삶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또는 무심코 지나던 길에서 노랗게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주변의 아주 작은 것, 따뜻한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분임을 발견한다면 그만큼 기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5분이라도,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한 성탄 시기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삶 한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안아드리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라떼 본당 복사단과 함께. 필자 왼쪽은 필리핀 지부장 레오 디스터 신부이다.

칠레에서 만난 하느님

이현규 대건 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소속이며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2017년 칠레에 파견되었다. 칠레 북쪽 고산 사막 지역에 있는 이키케Iquique 교구 예수 성심 본당(Sagrado Corazon de Jesu)에서 선교하고 있다.

이제 칠레 생활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했던 모든 경험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은총은 다양한 우연이 겹쳐 만들어진 필연 속에서 제게 모습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총은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의 커다란 이끄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본당은 도시빈민 사목이 중심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 덕에 저는 다양한 사목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랜 주인은 아이마라족입니다. 수많은 이주민이 유입되었어도 여전히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원주민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작은형제회 신부님 한 분이 원주민 마을을 도맡아 사목하셨는데, 제가 이곳 이키케로 발령받아 도착한 그해에 신부님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서 원주민 사목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교구는 원주민 지역을 여러 신부에게 할당하였고, 제게도 칠레–볼리비아 국경지대 15개 마을이 떨어졌습니다. 환경은 척박하고 사람들의 신앙은 메말라 있었으며, 본당 일과 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가벼운 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안데스 문명의 가장 오래된 부족 중 하나인 아이마라족의 전통을 만나고,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동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교사로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마라족 신년 행사

「콜롬반선교」 청탁 원고

칠레 독립기념일 미사를 마치고 본당 신자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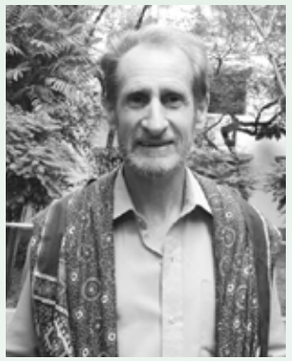
이주민과의 만남도 빼놓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팬데믹 시기, 칠레에는 정말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합법적 절차 없이 걸어서 산을 넘고 국경을 넘은 이들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수도 산티아고로 향했지만, 일부는 여기에 남아 특히 우리 본당 구역에 난민촌을 짓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상당해 난민촌을 걸어서 가로지르는 데만 30분 넘게 걸리는, 하나의 독립된 마을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가능한 한 그들을 동반하며 법적, 영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교회 터를 잡았고 다용도실 건축에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성전이 하나 세워지고, 공소로써 또 하나의 가톨릭 공동체가 만들어지리라는 희망 아래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이주민 사목은 사실 훨씬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신자 중 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에서 온 이주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자기 나라의 신앙과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10여 년 전 칠레 교회의 성 추문 사건 이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칠레 사람들이 성당을 거의 찾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교회 안에 외국인, 이주민 비율이 칠레인을 압도하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우리 본당은 칠레 본당인데도, 8월에는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전통인 우르쿠피냐 성모(Virgende Urkupiña) 축일을 지내고, 10월에는 페루 리마에서 넘어온 기적의 주님(Señor de los Milagros) 축제, 12월에는 콜롬비아의 성탄 9일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칠레 전통 축제와 축일 또한 소홀함 없이 거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 시간 이민자들과 함께 매주 미사를 드리고 행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마침내 국경 없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의 본당에 선교사로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느 하나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제로서 참으로 축복받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제 부족함이 떠오르지만, 그 부족함 안에서도 저를 쓰시고, 저를 깨우침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차오릅니다. 앞으로도, 부디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써 충만히 사용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파키스탄 대홍수 보고서

다니엘 오코너 신부
Daniel O'Connor
번역 • 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뉴질랜드 출신이며 1983년 파키스탄에서 첫 선교를 시작하였고, 1986년 사제품을 받은 후 다시 파견돼 40년째 선교하고 있다. 현재는 남부 항구도시 카라치에서 사목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여름, 40일 밤낮으로 내린 폭우에 빙하까지 녹으면서 국토 3분의 1이 잠기고, 어린이 약 600명을 포함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 저는 구호품 배급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을 알리려고 파키스탄 정부 소수민족부 장관실을 몇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제게 넋두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왔다가도 우리가 신자라는 걸 아는 순간 구호품을 이슬람교도들에게 줘버립니다." 이곳 파키스탄 신드에서 활동하는 골롬반 선교사들은,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수재민에게 지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매우 감사합니다. 수재민이 그리스도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관계없이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보내신 액수가 막대한 수해 규모에 비하면 '바다에 떨어진 물방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조차도 절실히 필요한 이에게는 하느님께서 내려준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재난이 닥칠 때면 기금과 구호품을 가로챌 기회를 엿보며 기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훔친 물건이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심지어 카라치 지역 어느 곳에는 빼돌린 구호품이 길가에 산처럼 쌓여있기도 합니다.

9월 초 파키스탄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대형 기후 참사는 본 적이 없다며 전 세계를 향해 호소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으면서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베팅을 하는 국가들의 비협조로 파키스탄과 여타 개발도상국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광기를 멈추고 당장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세요! 자연과의 전쟁을 끝내십시오! **오늘은 파키스탄이 끔찍한 대가를 치렀지만, 내일은 다른 나라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약속한 국가는 많으나 늘 그렇듯 이행은 더딥니다. "우방국들은 파키스탄을 늘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고 셰바즈 샤리프 총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난에서 파키스탄이 바라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 인구는 약 2억 2천5백만 명인데,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퍼센트도 안됩니다. 다른 나라의 생태적 과실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재민 수십만 명이 고지대 도로변과 철도 주변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화장실도 없이 지내며, 말라리아, 뎅기열, 콜레라, 이질, 피부병 등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환자 두 명을 '국민참여형 보건 사업'이라 불리는 무료 진료소에 데려갔는데 그곳 의사에게 들은 바로는 환자 대부분이 홍수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왔다고 합니다. 또한, 매달 7만 3천 명의 아기들이 텐트 같은 임시 대피소에서 태어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산모들은 불안을 겪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필요한 위생용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카리타스의 도움으로 이번 주에는 바하로 마을에 사는 신자 가정 열여덟 집과 힌두교인들에게 비상식량, 구호 상자, 모기장, 치약 칫솔이 든 위생 키트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운하가 흘러넘쳐서 토지가 침수되고 잘 재배해 오던 목화 농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들은 비상식량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덕분에 당장 굶주림은 면했고 향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벼농사 피해가 막심하지만 쓰러져 있는 벼를 농부들이 낫으로 베어 수확할 수 있는 양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용할 밥과 빵을 얻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막대한 국방비를 포함해 비개발 부문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발유 공급을 제한하고 비필수적 물품 수입을 금지해 복구와 예방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불어났던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주택과 농경지를 재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변화된 여건에 적응해 가며 정상적인 생활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람원에 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방을 쌓아서 물길이 인구 밀집 지역을 비껴가게 해야 하고, 소규모 댐이나 저수지 등을 조성하여 범람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토지개발 관행과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비책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단체가 지원한 구호품을 받고 있는 수재민들 (2022년 10월)

대만에서 쓰는 선교 일기

이지영 크리스티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7년 대만으로 파견되었고 함께 파견된 김정웅 요한 보스코 선교사와 결혼하여 부부가 같이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 쉼터, 보육원 등에서 소임하였고, 현재 대만 신주시 장애인 센터에서 종사자들과 장애인들을 동반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교육 활동을 돕고 있는 필자

부족함 안에서 풍요로움 발견하기

9월에 들어섰는데도 오늘 대만의 아침 기온이 36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시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태풍이 한국과 일본으로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대만은 태풍을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물이 귀한 섬나라이다 보니 하루 이틀 사이에 지나가는 태풍은 비를 뿌려 물을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물값과 전기료가 싸지 않습니다. 처음 대만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보았을 때 너무 적게 나와서 놀랐었는데 이제 대만도 물 부족 국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단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나마 도시는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산이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식수조차 부족하니 샤워는 짧게, 화장실 물은 여러 번 사용 후 내리기, 샴푸 쓰지 않기, 대야에 물 받아서 세수하기 등등으로 며칠을 지냈습니다. 부족은 불편을 만드는 게 사실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왔는지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불편함이라고 여겼던 것이 환경을 생각하는 삶으로 일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물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눈앞에 드러내 주신 주님의 사랑

제가 일하는 곳은 장애인 주간 교육시설입니다. 신주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곳이라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주시 시장의 특별 방역 지침으로 활동하는 데 제한이 많았습니다. 대만은 자체적으로 만든 백신을 시설 종사자들에게 먼저 접종하도록 권유하였고, 대만 총통이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간섭으로 백신을 들여올 여건이 되지 못하여 중국산, 대만 국내산,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산을 들여와 접종해야 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활동하려면 백신이 필수였지만 외국인인 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도 조급했습니다. 선교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더디기만 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대만 정부에, 신주 시장의 특별 방침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내게 하는 이야기가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나를 염려해서 해준 말인 것을 한참이 지난 뒤 알고는 부끄러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로 인해 내 곁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매 순간 나의 행동과 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이의 진실한 마음을 스쳐 지나쳐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좋은 관계로 이어진 끈이 너무나 느슨해져 아무리 당겨도 팽팽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끈을 내려놓으면서 다른 끈을 잡고 새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끈이라 손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끈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이 끈이 또다시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다시 새 끈을 찾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기꺼이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반갑게 나를 맞아주고 그들의 시간 안에 내가 머물게 허락해 주는 장애인 친구들과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오늘은 주님이 주신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정에서 찾아가는 참행복

지난여름 고향 휴가 때 남편과 함께 서울, 광주, 제주에 계시는 골롬반 후원회원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팬데믹 시기인데도 골롬반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적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거듭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대만에서 15년을 살았는

중국어를 가르친 대만인 선생님(왼쪽)과 함께

데도 여전히 언어도 기후도 문화도 다름을 느끼지만, 저는 이곳이 한국보다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행복은 꼭 편한 환경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배웁니다. 다른 환경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이 길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간 정돈된 길이 아니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함께 이 길을 걷는 동료 선교사들이 있어서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후원회원 여러분이 계셔서 외롭거나 주눅 들지 않습니다. 앞서 사셨던 선교사들을 따라 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성장**한 곳, **한국**

민후고Hugh MacMahon 신부
번역 • 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신이며 1962년 수품 후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제주 중앙주교좌, 서울 화양동(설립), 광주 중흥동 등 여러 본당에서 사목하였다. 비교종교학 학위를 받은 유교 전문가로서 토착화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와 저술 활동을 펼쳤다. 초창기 평신도선교사 양성을 맡았고, '사랑의집'에서 일하였다. 1995년부터 20여 년간 중국에서 일했고, 아일랜드에서 선교 영성과 토착화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어땠는지 질문을 받으면 내가 성장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답합니다. 저는 스물다섯에 한국에 갔다가 쉰일곱에 떠났습니다. 그 세월은 저 자신을 그리고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낯선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깨달았고, 내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한국도 발전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마치 저와 인생 여정을 함께하는 것 같았습니다.

1963년, 그때 한국은 아직 전쟁의 참화에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집은 작고 단순했으며, 시장에서 파는 건 생필품이 전부였고, 식구들이 겨우 살아갈 만큼만 벌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배우며, 제가 알던 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형편이 차차 나아졌습니다. 도로가 개선되고 수도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도시 변두리에 주택이 새로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즈음 저는 서울대교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광진구 화양시장 안 상가 2층에서 본당을 시작하였는데, 1층에는 술집과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두 명뿐인 곳에서 그들과 미사 시작을 준비하였고, 사십 명이 모여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저도, 본당 신자들도 젊었고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화양동 본당을 떠날 무렵에 신자수는 거의 삼천 명이 있었습니다.

1963년 한국에 파견된 동기 사제들과 함께. 이들은 올해로 서품 60주년을 맞았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옥 벨라도 신부, 천요한 신부, 강요한 신부, 민후고 신부, 서요셉 신부, 선배이자 한국에 첫 번째로 파견되었던 매 제랄드 신부, 범 제랄드 신부이다.

서울대교구 행당동성당 주임 시절, 첫영성체 예식 후(1977년, 필자 오른쪽은 오기백 신부)

나라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사람들은 창출된 부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갖기 원하고, 인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학생, 노동자, 사회 변두리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지학순 주교, 윤공희 대주교, 두봉 주교 등 교회 지도자가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종교의 책무와 사회 문제가 무관하지 않으며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1980년 9월, 저는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여파를 감내하고 있을 때 광주 중흥동 본당에 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저에게 인내하는 법을, 그리고 그 끈질긴 노력으로, 무력이 당장 이룰 수 없는 일을 마침내 해낸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선교사 몇 명과 서울 신림10동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재개발로 마을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진료소,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어린이집, 신용조합, 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가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도우면, 지역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사람들을 북돋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교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일랜드도 주일에 성전이 꽉 차지 않고, 예전만큼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성)"를 제시했는데 이는 공동체, 참여, 선교를 새롭게 강조합니다. 이 정신은 바로 한국의 초창기 본당 공동체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의 이름을 알고 책임을 나눠지며, 가치관과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한국과 아일랜드도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골롬반 선교로 초대합니다

인터뷰 • **안인성 패트릭** 신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지부신학원에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신학생 양성 담당자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 골롬반회 신학생들의 양성 현황을 공유하고, 선교회의 희망과 비전을 반영한 보다 나은 양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 토의하였습니다. 참석자 중 다섯 명의 양성자들이 선교사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초대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바로 마르티네스 Alvero Martinez 신부

칠레 출생. 2003년 서품
칠레지부 성소 담당과 지부장 역임
본회 총본부 참사위원(홍콩)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본부는 각 나라 골롬반회의 성소자 초대와 신학생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양성 책임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것은 선교회에 큰 기쁨입니다. 그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도움을 제공하는 일도 총본부의 역할이지요. 우리 신학생들이 세계에 봉사하는 본회 카리스마를 잘 이해하고, 영적 학문적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그곳 교회를 지원하는 한국 교회에서 보다 많은 선교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선교는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는 특수한 소명이지만, 응답할 가치가 충분한 도전입니다. 부르심을 느낀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 내 도전해 보세요.

권태문 사도 요한 신부

한국 출생. 2010년 서품
대만과 중국 선교
“영성의 해” 원장(필리핀 마닐라)

마닐라 “영성의 해” 집에서 한국 신학생 3명과 미얀마 신학생 3명, 필리핀 사람 크리스토퍼 부원장 신부와 지내고 있습니다. 영성의 해는 신학생들의 영적 수련 과정으로 약 1년 동안 자기 자신과 하느님, 그리고 선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 교회와 선교회의 역사, 기도와 선교 영성을 배우는데, 그 일환으로 첫째, 생태적 삶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지구를 보호할 사명을 주셨으니 생태적 삶은 영성 생활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중요한 골롬반회로서, 기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은 신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안에서 상호 교류하며 함께 사는 삶(multicultural living–intercultural living)”입니다. 오늘날 우리회는 “함께 걷기”를 지향하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여러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살아갑니다.

상호 다문화적인 삶에 관심이 있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길 원하며, 하느님의 크신 계획안에서 참다운 자기가 되는 삶을 갈망한다면, 골롬반회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한국 출생. 2011년 서품
페루 선교
한국지부 신학원장

성소 모임에서 성소 식별 과정을 통해 입회 심사를 거치면 골롬반회 신학원으로 들어옵니다. 입회 후에는 서울 가톨릭 신학교에 입학하며, 철학 공부 2년을 마침과 동시에 외국 신학교에서 수학할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필리핀에 있는 아테네오 로욜라 신학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 과정 중에 영성의 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음 단계로 첫 해외 선교 발령(First Mission Assignment)을 받아 선교지에 가서 2년 동안 실습을 합니다. 이를 마친 후에는 남아 있는 신학 공부를 끝냅니다. 그리고 종신서원을 하고 부제품을 받습니다. 부제 실습 6개월을 마친 후에 사제품을 받게 됩니다. 현재 한국 신학생은 칠레, 페루, 필리핀에서 선교 실습하는 5명,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 과정 중인 3명이 있습니다.

선교사제가 되려면 이렇게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길이지만, 이 선교 여정 안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나의 가치를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알고 싶다면 골롬반회로 오십시오.

크리스토퍼 카미뇨 Christopher Kaamino 신부

필리핀 출생. 2011년 서품
대만과 필리핀 선교
현재 “영성의 해” 부원장

영성을 말하기 전에 신학생들이 자신의 인간성에 뿌리를 내리도록 안내합니다.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기 상처를 개방하는 사람, 모든 어려움과 혼란 중에도 미래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새롭게 할 희망과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영성의 해 집에 함께 사는 여러 나라 사람들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만큼 상황을 이해하는 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인내하고 타협하며 지냅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의지도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역동성을 만들어 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관심이 있다면 골롬반회로 오세요.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핀바 맥스웰 Finbar Maxwell 신부

아일랜드 출생. 1988년 서품
파키스탄과 아일랜드 선교
필리핀지부 신학원장

골롬반회 신학생들의 출신 나라는 미얀마, 키리바시, 피지, 필리핀, 한국입니다. 이들은 우리 선교회의 미래이지요. 미래에 선교회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성 과정에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 교회가 맞닥뜨린 변화와 도전을 잘 알고 있고, 해외 선교 실습을 하면서 그러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성소를 더 깊이 인식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크고, 전심을 다해 선교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도 선교사가 되어 이들과 함께 해외선교 안에서 삶의 도전과 선물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보물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풍요롭고 활기찬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동반자, 방순옥 엘리사벳

인터뷰 정리 • 김소영

방순옥 엘리사벳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나요. 저는 인터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제주에서 활동한 골롬반 선교사들과 오랫동안 일한 분이라 선교사들과의 추억을 듣고 싶어 왔다고 하니, 신부님 수녀님들 이야기라면 할 수 있겠다 했다. 제주의 본당, 한림수직, 이시돌의원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기도로써 골롬반 선교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방순옥 엘리사벳 씨를 만났다.

그의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 사진이 걸려 있다(25쪽). 가운데는 골롬반회 사제였던 구 가를로 신부가 있고, 묵주를 손에 든 청소년들 사이에 방순옥 엘리사벳 씨와 큰 언니 방정옥 마리아 씨(편집자주: 재일교포 인권운동가, 2017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가 있다. 제주교구 ■〈신비의 로사리오회〉 첫 회원들이다. 신성여고 학생이며 중앙 본당 신자였던 엘리사벳 씨는 기도하는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 사진 속 여고생은 자신이 선교사와 함께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리라는 것을 몰랐겠지만, 삶의 지점마다 "예"라고 순명한 그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업에 참여할 은총을 주셨다.

신앙은 외조모부터 내려왔다. 신축교난 때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외조모가 살던 제주 우도로 숨어들었다. 외조모는 동굴에 숨은 신자들에게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벳 씨 가슴에 씨앗으로 심어져 튼튼하게 뿌리내렸다. 김녕 우체국장이었던 아버지와 강인한 제주 여성인 어머니, 형제들과 행복한 성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전쟁은 많은 것을 빼앗았다. 아버지가 인민군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되고,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밀항선을 탔다. 어머니는 일본에서 번 돈을 인편에 부쳐 주고, 할머니는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큰 언니 마리아 씨는 학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나서야 했는데 육지에서 일하다가도 매주 하루는 김녕에 와서 신자들을 모으고, 집을 미사 장소로 내놓았다. 매주 수요일, 골롬반 신부들이 와서 미사를 하고 자매는 교리를 가르쳤다. 몇 년이 지난 후 집이 비좁아질 정도로 신자수가 늘었다. 훗날 하느님께서는 김녕에 성당을 세워 주셨다. 자매의 꿈이 이루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모교 선생님이기도 했던 중앙 본당 구 가를로 신부가 엘리사벳 씨를 본당 전교회장 겸 유치원 보조 교사로 채용하였다. 그곳에서 원요한 신부, 노 마일스 신부, 은 다니엘 신부 등 골롬반 신부들과 일했다. "은 다니엘 신부님은 말씀도 재미있게 하셨고 잘 웃으셨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같이 들어 주셨고, 자상하고 열심히 일한 분이었지요. 저를 광양성당으로 보내면서 아쉬워하셨던 얼굴이 생각납니다."

원 요한 신부가 신설 본당인 광양에 부임하면서 엘리사벳 씨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선배 뜻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은 다니엘 신부도, 엘리사벳 씨도 원 신부의 초대에 순명했다. "원요한 신부님은 가만히 앉아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아파서 미사에 못 왔다 하면 즉시 방문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교우 집 형편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진 않았는지 알아보라고 제게 슬쩍 말씀하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신부님은 제가 실수해도 너그럽게 괜찮다, 수고했다 하셨지요.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 사연을 아셨던 신부님은 같이 걱정해 주고 도와 주셨어요."

본당 일로 한창 바쁘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왔다. "한림수직의 ■■로사리 수녀님이 경리 직원을 급히 구해야 하니 와서 일하기를 바라셨어요. 본당 형편도 마찬가지라 길 요셉 신부님이 고민하셨지만, 수녀님들 사정을 모른 체 할 수 없어 저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림으로 가면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포기할 것이 많았거든요." 그랬지만, 새로운 초대에 응답한 그는 10년을 한림에서 일하며,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진 제공: 방순옥

첫 줄 맨 왼쪽이 방순옥 씨이고
둘째 줄 오른쪽이 큰 언니 방정옥 씨다.

때가 되어 다시 광양성당에서 그를 불렀다. 그때 만난 함 에이든 신부와도 즐겁게 일했다. "참 편안하게 대해 주셨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잘 맞았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일해야 하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선교사와의 인연은 또 새롭게 이어졌다. 이시돌 의원에서 함께하자고 그를 초대했다. ■■엔다 수녀가 왕진할 때 동행하는 일 등 행정을 맡았다. "로즈 환자(뇌전증)는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약을 챙기는 일을 했어요. 엔다 수녀님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셨어요. 수녀님과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하느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이 올 때 이상하게도 신부님들은 그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하느님의 사업이고, 선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엘리사벳 씨의 이 말을 들으니, 선교사들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으며 항상 도와주는 이들이 곁에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어 "함께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당신의 선교를 완성하심을 확인한다. 엘리사벳 씨는 제주 골롬반 사제관 후원회 월례 미사에 딸과 참례하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했다. 엘리사벳 씨처럼 골롬반회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선교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바다 건너 선교사들에게 큰 힘으로 전해지길 바란다.

■ 1957년 제주 중앙 본당 청년들이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려오는 기도 모임. 신학생 양성과 사제 탄생에 지향을 두고 각자 매일 묵주기도 1단을 바치며 기도 고리를 함께 이어온 로사리오회는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했다.

■■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문 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문자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02-929-1366
  이메일: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062-371-5824
  이메일: korkwangjufund@columban.or.kr

『골롬반선교』 잡지는 연 3회 발송(4, 9, 12월 예정)하며 이때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께 지로용지를 동봉합니다. 용지가 더 필요한 분은 지역 사무실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22년 12월 ~
2023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	2일	6일	3일	3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3일	10일	14일	14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4일	-	8일	8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9일	13일	10일	10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3일	27일	24일	24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17일	21일	28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5일	22일	29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6일	23일	30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27일	24일	31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8일	-	-	9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1일	18일	22일	22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7일	-	21일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20일	-	21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광주:** 2022년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 **목포:** 2023년 1월 미사는 설 연휴로 한 주 앞당겨 17일에 합니다.
- **원주:** 2023년 1월 미사는 없습니다.

절취선

온라인 신청
columban.or.kr/family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친교와 연대의 발맞춤” 한국지부 총회와 성 골롬반 축일 미사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지부 총회〉를 열었습니다. “친교와 연대의 발맞춤”을 주제로 골롬반회원과 평신도선교사, 직원들이 선교의 미래를 희망 속에 함께 그렸습니다. 사제, 평신도, 국적, 나이, 성별, 언어 등 다양성을 지닌 골롬반회는 새로운 시대가 가져온 선교 사명을 성령과 함께,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기쁘게 걸어갈 것입니다. 총회 마지막 날은 성 골롬반 축일이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면서, 총회를 주관하시어 풍요로운 나눔과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이대훈 소장을 초빙해 대화와 경청의 힘을 체험하는 워크숍을 하며 총회를 시작했다.

2년 9개월 만에 재개한 열린미사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열린미사를 9월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9월 미사에는 지원사제로 칠레에서 선교했던 정성훈 프란치스코 신부(서울대교구)가 이주민을 동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10월은 이현경 벨라뎃다 수녀(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사진)가 필리핀 무덤가 사람들과 함께했던 삶을, 11월은 김미진 베니아 수녀(성령선교수녀회)가 인도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 체험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미사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 골롬반선교센터에서 봉헌합니다.

위령성월, 춘천 죽림동 성직자 묘역과 부활 추모 성당 방문

11월 2일, 서울 본부에서 후원회원을 초대해 위령미사를 봉헌하며,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선종한 선교사제 스물여섯 분과 세상을 떠난 후원회원을 기억하였습니다. 15일에는 춘천교구 죽림동 성직자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구인란 주교를 비롯해 여덟 분의 골롬반 사제가 묻혀 계십니다. 이어서, 2020년 선종한 오록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고명은 수녀, 마가렛 모란 수녀, 오지타 수녀를 모신 춘천 부활성당으로 이동해 추모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해외선교지도 발행, 제8차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진행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회장 골롬반회 남승원 신부)가 해외선교지도를 발행했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2년마다 제작하는 것으로 한국 교회의 해외 선교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하고, 선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지도에 따르면, 현재 83개국에서 891명의 한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귀국 프로그램을 제주 성이시돌피정센터에서 진행했습니다(10/19~23). 참가자들은 선교지에서 으레 겪는 아픔을 나누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으며, 선교의 열매를 나누면서 선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며, 고국에서 재적응하도록 힘을 북돋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본 프로그램에 오기백 신부(사진 가운데)가 동반했습니다.

해외선교의 날, 안광훈 신부 패널로 참여

“해외선교의 날” 행사가 “행복하여라!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들”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 살레시오회 관구관에서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한 이날, 골롬반회 안광훈 신부가 패널로 참석해 57년 선교 여정에서 느낀 기쁨과 보람을 나누었습니다. 행사 영상은 가톨릭평화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cpbc 유튜브 화면 캡처

故 민수왕 신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4일 선종한 故 민수왕 패트릭 신부의 장례를 2년 만인 10월 22일에 마쳤습니다. 10월 14일, 광주대교구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주례와 옥현진 시몬 대주교,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목포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유해는 그날 광주대교구의 천주교 묘원(담양)과 22일 아일랜드 케리 가족 묘원에 안장하였습니다. 유가족은 유해를 모시고 떠나면서 민수왕 신부를 기억하는 한국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선교 사제의 길, 60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 선교했고, 지금은 고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 명의 사제가
올해 서품 희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일랜드 출신이며 1962년 12월 21일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회경축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요한 신부
John Hogan

광주대교구 진도·해남·흑산도·강진, 서울대교구 장위동·구의동, 인천교구 송림4동(설립)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파견되어 한인 교포사목을 하였다.

옥 벨라도 신부
Brian Oxley

원주교구 횡성, 춘천교구 간성·묵호·옥천동, 인천교구 송림4동·만수1동·여월동·남동·선학동·시흥 도창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강원도와 인천에 5개 본당을 지었다.

민 후고 신부
Hugh MacMahon

제주 중앙주교좌, 서울 화양동(설립)·행당동·돈암동, 광주 중흥동·북동 본당, 서울 신림10동 '사랑의집'에서 활동했다. 한국을 떠난 후 20년간 중국에서 일하였다.

서 요셉 신부
Joseph Cahill

흑산도·목포 북교동, 제주 중앙주교좌, 서울 돈암동·구의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70년대 초 한국 교회 최초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임상사목 교육 및 병원사목을 시작하였다.

천 요한 신부
John Smyth

서울 도봉동·상봉동·등촌동·묵동(설립), 강원도 죽림동·양덕원·임당동·묵호·진부·평창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90년대 초 미국으로 파견되어 한인 교포사목을 하였다.

범 제랄드 신부
Gerard French

춘천교구 소양로, 양덕원, 동명동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한국을 떠난 후 심리치료를 전공했고, 영국과 아일랜드 교회 안밖에서 여러 그룹을 촉진하는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사진 제공: 아일랜드지부

제주 골롬반 사제관 후원회 월례미사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오후 3시, 제주시 골롬반 사제관에서 후원회 월례미사를 봉헌합니다. 골롬반회의 최근 소식과 선교사 근황,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입니다. 선교사와 선교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분은 후원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서귀복자성당과 서귀포성당에서도 격월로 셋째 화요일 저녁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문의: 064-711-2471

칠레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칠레에서 활동하는 골롬반 선교사들입니다. (왼쪽부터) 성요섭 요셉 신학생, 김종근 도밍고 신부, 산티아고 교구장 셀레스티노 대주교, 박요섭 요셉 신학생,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 조성근 제노비오 신부입니다. 칠레 본부의 골롬반 성상을 중심으로 선 모습에서 행복한 선교 생활을 짐작합니다. 성 골롬반을 좇아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골롬반선교
2022년 겨울호 vol.123

표지 이야기
올여름 내린 폭우로 파키스탄의 국토 3분의 1일이 물에 잠겼고,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다. 기후변화가 원인인 재난으로 특히 가난한 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 어둠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2022년 성탄, 우리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빛을 나눌 수 있을까.
관련 글: 16-17쪽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인스타그램 columban_korea

주소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서경희(스테파노) 신부
편집장 안인성(패트릭) 신부
편집위원 노혜인(안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소영(세실리아)
번역 배영재(요세피나)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금강기획인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지부 총회에 참석한 골롬반회 사제와 평신도선교사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이애리사 엘리사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